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및 해설

01. ②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6. ③ 07. ② 08. ④ 09. ④ 10. ⑤  
 11. ③ 12. ① 13. ④ 14. ① 15. ② 16. ④ 17. ② 18. ⑤ 19. ⑤ 20. ⑤

**1. 칸트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칸트이다. 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이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자연법칙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 ③ 칸트는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릴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자기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의무이기도 하다.
- ④ 칸트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⑤ 칸트는 자연적 감정이 아니라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순자와 맹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순자이고,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악한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소인과 달리 군자는 악한 본성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보았다(ㄱ). 맹자는 순자와 달리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ㄴ). 순자와 맹자는 모두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ㄷ).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ㄷ. 순자와 맹자는 모두 군자와 소인의 타고난 본성이 같다고 보았다. 다만 순자는 모든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고, 맹자는 선하다고 보았다.

**3. 롤스와 노직 정의론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롤스이고,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가상적인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노직과 달리 우연적 여건의 불평등은 반드시 차등의 원칙에 의해 보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의 복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노직은 재화의 분배 결과보다는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④ 노직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 ⑤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상황의 계약 당사자들은 타인들의 이익에 관심이 없다.

**4. 원불교와 동학사상의 비교 이해**

---

**정답 해설** : 갑은 박중빈이고, 을은 최제우이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중빈은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보은·평등·불공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박중빈은 물질문명을 완성한 이후에 정신개혁을 이루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③ 최제우는 한울님을 하늘에 있는 초월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 ④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한 원한의 해소는 증산교의 강일순이 강조한 내용이다.
- ⑤ 박중빈과 최제우는 모두 유불도 삼교의 합일을 추구하였지, 유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다른 사상을 통합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 5. 아우렐리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렐리우스이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보다 자기 자신을 따름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살 때에는 마귀와 같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필연성에 순응할 때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 ② 아우렐리우스는 정념이 아니라 이성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 ④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을 통해 신의 은총을 받아야 지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⑤ 신의 은총으로 인간이 신과 합일할 수 있다고 본 사상가는 아우구스티누스이다.

### 6.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리는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용기, 절제 등의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중용인지는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에 따르면 전체를 위한 유익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지혜이다.
- ②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이 덕을 갖추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용기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앎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7. 마르크스와 왈처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마르크스이고, 을은 왈처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가 도래하면 분업이 철폐되고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고

보았다.

③ 왈처는 영역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을 주장하지 않았다.

④ 왈처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⑤ 왈처에 따르면 경제적 재화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 8. 베이컨과 듀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베이컨이고, 을은 듀이이다. 듀이는 실험과 지성적 탐구를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그리고 베이컨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ㄹ). **정답 ④**

### [오답피하기]

ㄱ. 베이컨에 따르면 “삼단 논법은 학문의 원칙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중간 수준의 공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연의 심오함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ㄷ. 듀이는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지식을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로 보았다.

## 9. 이이의 사단칠정론과 수양론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대화의 ‘스승’은 이이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氣)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단은 칠정의 선한 일변(一邊)이며, 칠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ㄱ). 또한 이이는 수렴(收斂)의 핵심을 경(敬)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경을 지니는 것[持敬(지경)]은 궁리(窮理)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ㄷ). 그리고 경으로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해야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자 마음의 본체인 성(誠)에 이를 수 있다(ㄹ). **정답 ④**

### [오답피하기]

ㄴ. 이이에 따르면 기질 교정의 목적은 사단이 생성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지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에 따르면 “기(氣)가 맑고 바탕이 순수한 사람은 힘쓰지 않고도 지(知)와 행(行)에 능하게 되어 더할 것이 없다.”

## 10. 흠과 벤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흠이고, 을은 벤담이다. 흠은 공감의 원리에 따른 승인과 부인의 감정을 도덕의 기초로 보았다. 그러나 벤담은 공감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공리의 원리를 도덕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다(ㄴ). 흠은 덕과 부덕은 이성이나 감정에 의해 구별된다고 보았다(ㄷ). 벤담은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근거는 공리의 원리라는 보편적 원리라고 보았다(ㄹ). **정답 ⑤**

### [오답피하기]

ㄱ. 흠과 벤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러므로 A에 들어갈 수 없는 질

문이다.

### 11. 원효와 지눌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원효이고, 을은 지눌이다. 지눌은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습기(習氣)를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는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강조하였다. 내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원효가 중시한 일심의 법에서 보면 생(生)과 멸(滅)은 둘이 아니다.
- ②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에 따르면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여러 종파의 이론들을 일심에 의거해서 회통시켜야 한다.
- ④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혜[慧]는 선정[定]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 ⑤ 원효와 지눌은 모두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12. 노자와 장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노자는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다투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노자는 공적을 쌓아 이름을 떨치려는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③, ④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봄으로써 시비와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⑤ 노자와 장자는 모두 인위 규범인 예(禮)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 13. 수정 자본주의와 민주 사회주의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사상이고, (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담겨 있는 민주 사회주의 사상이다. 민주 사회주의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개인의 사적인 이윤 추구보다 중요하다고 본다(ㄴ).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케인즈는 유효 수요의 과잉이 아니라 유효 수요의 부족이 실업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 ㄷ. 민주 사회주의는 계획과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며,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 14. 에피쿠로스와 소크라테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필수적

---

이지 않은 욕구를 추구하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ㄱ). 에피쿠로스와 소크라테스는 모두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지혜를 갖추고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 ㄷ. 지덕복합일설을 제시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앎이 없는 덕은 있을 수 없다.

15. 에피쿠로스와 밀의 공통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밀의 주장이다. 밀에 따르면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희생은 선이 될 수 없다. 고통의 부재나 쾌락을 행복으로 보는 에피쿠로스 역시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자기희생 자체는 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일에서 벗어나 소박하게 살 것을 강조하였다.
- ③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행동의 목표로 보았다.
- ④ 에피쿠로스와 밀은 모두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 ⑤ 에피쿠로스와 밀은 모두 쾌락과 고통을 어떤 행위를 추구하거나 기피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16. 석가모니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라는 오온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그에 따르면 오온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ㄱ). 그리고 만물은 늘 변화하며 인간의 현실적 삶 자체는 고통이다(ㄴ). 또한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ㄷ.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17. 사르트르와 스피노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사르트르이고,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을 자유 자체로 본 사르트르는 스피노자에게 “인간은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스피노자는 인간이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③ 사르트르는 보편적 법칙에 대한 순응이 실존 회복의 근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 ④ 사르트르는 이성을 통해 감정을 순화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스피노자는 신이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 18. 사단과 사덕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 입장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정약용이고, 을은 주희이다. 정약용은 ‘사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天理(천리)]이며, 사단은 사덕의 단서[緒(서)]’라는 주희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은 사덕의 시작[始(시)]이 되는 선한 마음이며, 사덕은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인덕(人德)이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에 따르면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선한 마음이다.
- ② 정약용에 따르면 측은지심을 확충하기 이전에는 마음에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주희에 따르면 측은지심은 인이 마음에 존재함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이다.
- ④ 주희에 따르면 측은지심은 마음의 쓰임인 정이고 인은 마음의 본체인 성이다.

### 19. 홉스, 로크, 루소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며, 병은 루소이다. 루소는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홉스는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은 법률의 제정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루소는 홉스에게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홉스뿐만 아니라 로크, 루소도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② 로크는 홉스와 달리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분할을 강조하였다.
- ③ 루소는 입법권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위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④ 로크뿐만 아니라 루소도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20. 나딩스의 배려 윤리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의 작성자는 배려 윤리 사상가인 나딩스이고, ‘선생님’은 나딩스가 비판하는 ‘정의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가이다. 나딩스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강조하는 ‘정의 윤리’에 대해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다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정의 윤리에서는 동정심과 같은 감정은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정의 윤리는 도덕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③ 배려의 의무가 자연적 배려의 경험에서 발생한다고 본 사상가는 나딩스이다.
- ④ 정의 윤리는 도덕 교육의 과제를 이성에 의한 도덕적 추론 능력의 함양으로 본다.